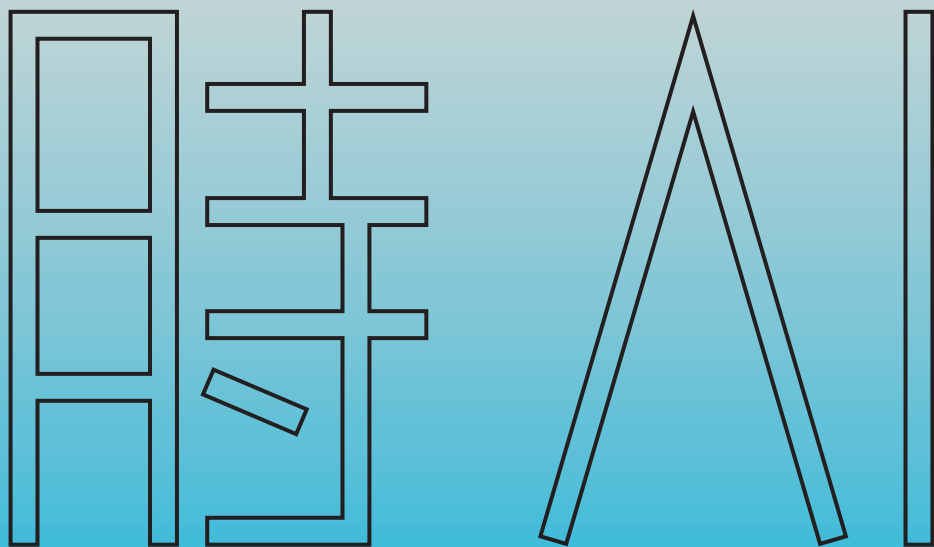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포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전시 《시時스루through》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공예도시를 공표한 청주시와 평화로 문화 예술 교류의 첫 발걸음으로 청주시한국공예관의 소장품 64점을 포천에서 선보입니다. 우수한 공예의 예술성을 청주를 넘어서 포천까지 전파하고자 합니다.

《시時스루through》는 인류의 삶과 미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공예의 가치를 관통하고자하는 의미를 담은 전시로 쓰임과 미의 가치라는 공예의 본질에 주목한 작품부터 공예의 확장을 다각적으로 탐구하는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전시는 3월 31일(화)부터 3월 27(일)까지 총 20일간 포천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2022 한국공예관 소장품 나들이전  
<시時스루through>

2022.3.8. - 3.27.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전시 기획  
박한별 (한국공예관 학예팀장)  
윤지영 (한국공예관 학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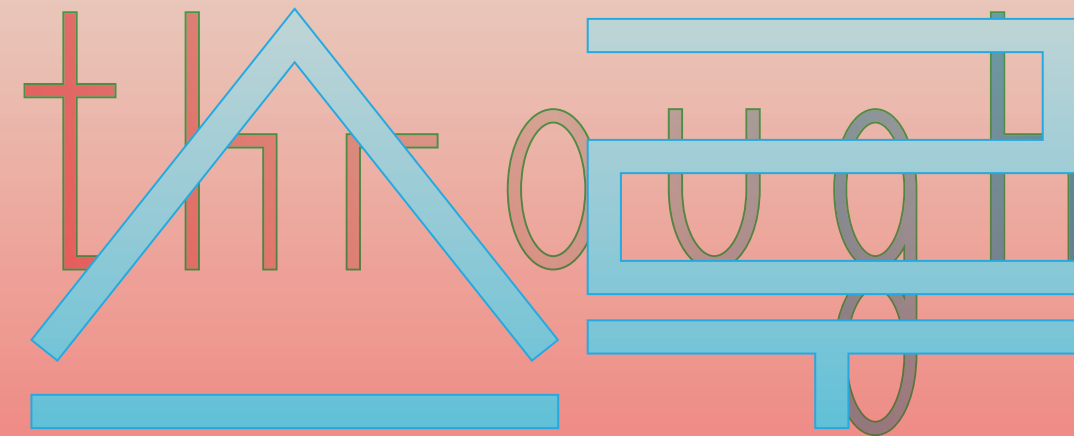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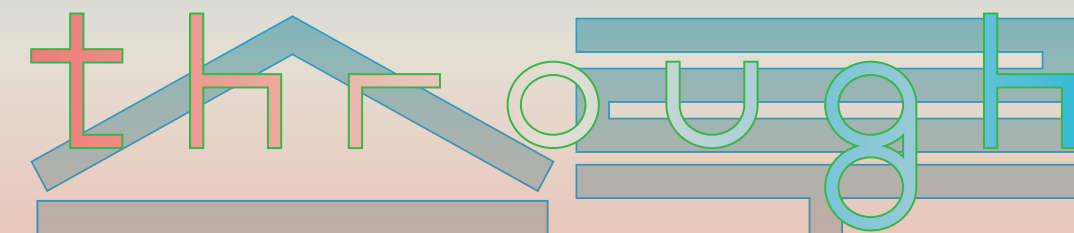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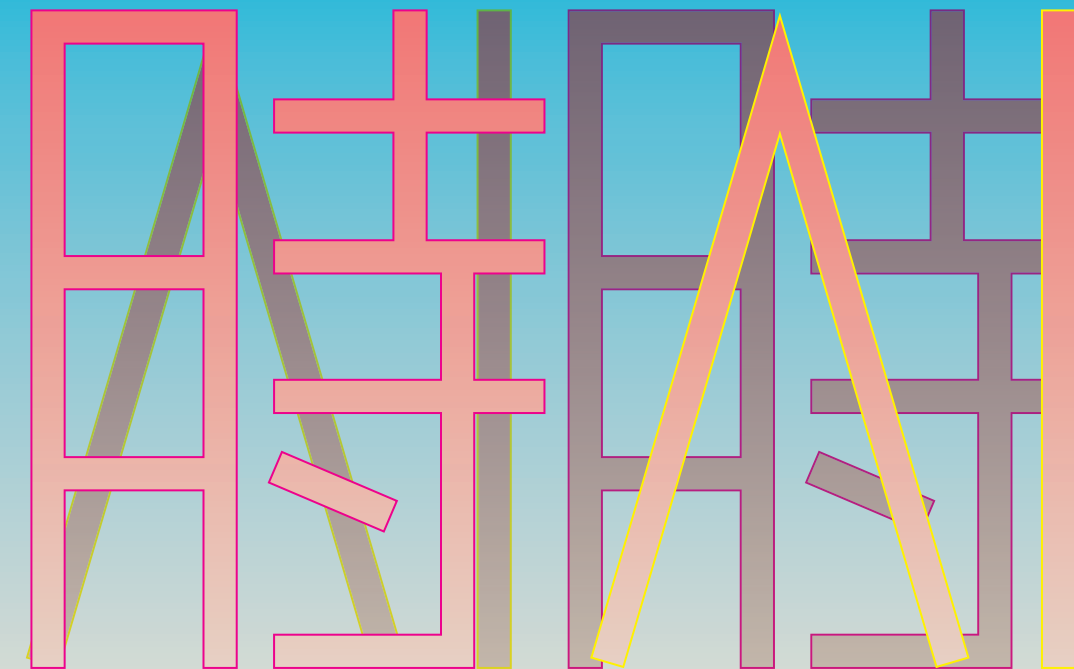
전시 운영  
포천문화재단 공연전시팀

시각·공간 디자인  
제로랩

운송·설치  
유니아트

주최  
포천시  
청주시

주관  
포천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한국공예관



청주시한국공예관 소장품나들이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時-through  
시-스루

2022.3.8 — 3.27  
매주 월요일 휴무



# 時 — through

문명이 도래하기 전부터 생존과 필요에 의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시작한 인류에게 공예란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으로 행해온 삶의 예술이자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상과 미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듯이 공예품을 통해 그 시대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청주시 한국공예관의 소장품은 동서양, 장르, 시대를 망라하는 공예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時스루through》전에서는 특히 쓰임이 있는 고려시대 토기부터 예술적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현대 공예 작품들까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의 되어온 ‘공예’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시時스루through》는 시(時) 간을 관통하는(through) 공예의 미학을 담은 전시로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시 — 스루

섹션1에서는 일상의 가치를 담은 생활예술로서의 공예 작품 49점을 쓰임에 따라 기(器), 도구, 그리고 장신구로 분류하여 선보입니다.

섹션1-1에서는 삶과 에너지를 담아낸 기(器)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식량이나 음료를 보관하는 기(器) 본연의 쓰임에 그 시대와 예술가 특유의 미감이 더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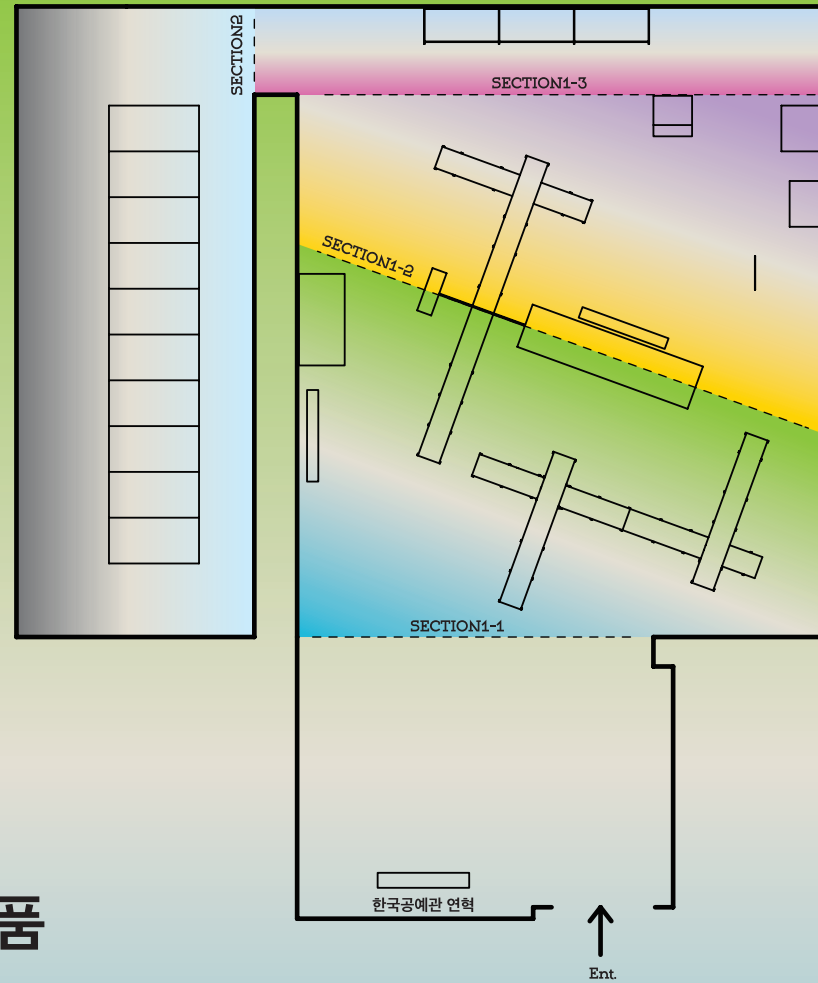
섹션1-2에서는 생활을 풍요롭고 이롭게 하는 도구들을 선보입니다.

섹션1-3에서는 미(美)의 추구하고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장신구들을 선보입니다.

섹션2에서는 공예의 확장을 다각적으로 탐구하여 작가의 조형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12점으로 채워졌습니다. 현대 공예의 정의는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변화하며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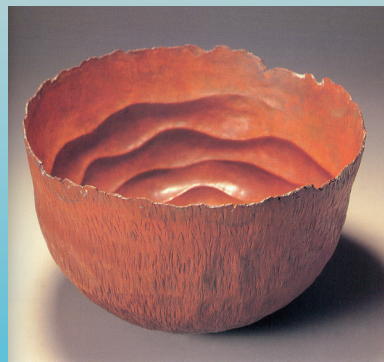
윤지영  
(청주시한국공예관 학예사)

#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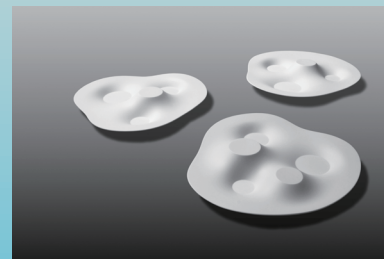


# 주요작품

## SECTION 1-1



Hiroshi Suzuki  
Rivulet II  
1999 ø22×14cm 금속



Yuichi Yanai  
Snowfield  
ø31×4cm(6ea.)\_도자

## SECTION 2



김유정  
Navel Chair  
2015 91×94×88cm 나일론, 철



박성열  
본연OTT001  
2018 ø50×30cm 옷, 안료

## SECTION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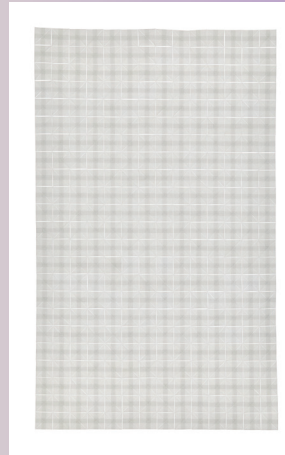
송유훈  
목어(木漁) 이야기  
2012 가변크기 금속, 흑단, 상감, 매듭

## SECTION 1-3



박수이  
동백건칠장신구  
2012 7×10.5cm 자개, 금박, 색분, 색웃칠, 건칠, 목심칠

허윤희  
Pray  
2019  
81.2×133.4cm  
면직물



Marion Delarue  
상투  
2018-19 6×10×6cm 나전, 옷칠